

정병규(불어불문학과 69학번) 정디자인 대표 인터뷰

글과 융화되는 디자인의 단초를 제공하다



정병규 대표는 “활자와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활자와 이미지를 보고, 놓는데 평생을 보낸 이가 있다. 정병규(불어불문학과 69학번) 정디자인 대표는 한국에서 생소했던 디자인 영역의 초석을 다졌다. 신문과 책,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대표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신념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던 정병규 대표는 항상 ‘디자인’이 궁금했다. “1990년대 전까지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광고 디자인’이었어요. 다른 방향은 아예 떠올리지 못했죠.” 대학생 때 고대신문에 몸담으며 새로운 디자인에 호기심을 가졌다. 신문을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활자와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신문 제작에도 원리나 비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활자의 원리를 알고 싶어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을 찾아 정독하고, 구하기 힘든 디자인 관련 원서를 읽으려 애쓰기도 했다.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며 글자와 이미지는 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미지는 사회의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디자인에 갈증을 느꼈던 정 대표는 파리 유학을 택했다.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외국 신문들을 모으며 학교 밖에서도 공부를 이어 나갔다. 특히 디자이너가 직접 편집해서 발간되는 이탈리아 신문인 ‘라 리퍼블리카(la Repubblica)’를 좋아했다. 정해진 요일에만 나오는 문화면은 따로 보관해둘 정도였다. “문화면을 펼쳤을 때 보이는 레이아웃이 예뻐요. 내가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실제로 유학 생활은 그가 한국에서 신문 디자인과 복 디자인 영역을 개척하는 자양분이 됐다.

대학 언론에서 시작된 디자인 여정

정병규 대표의 캠퍼스 생활은 고대신문을 비롯한 대학 언론으로 수놓아졌다.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맡은 그는 신문사 일정에 자신의 일상을 맞췄다. “수업을 듣는 것보다 신문사 일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웠어요. 기사 배치와 신문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습관이 몸에 배지 금까지도 선 하나는 잘 그어요.” 그는 신문의 면을 짜면서 신문에 의도를 담는 방법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법을 익혔다.

정 대표는 신문사를 통해 학교 안팎으로 여러 인연을 만들었다. 전국 대학 신문 기자 모임을 만들어 학생기자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당시는 학생운동과 언론이 탄압받던 시기였기에 학보사의 역할은 더 중대했다. 기성 언론에는 담지 못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대학 언론이 담아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작전을 세운 적도 있어요. 검열을 피해 인쇄 동판을 지키고자 여럿이 분투했었죠.” 위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문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

지인의 부탁으로 종종 ‘고대문화’ 발간에도 도움을 줬다. 고대문화 표지에 실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교지 1면이 잘못 자였던 적이 있어요. 외부인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교지의 단을 새로 짜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의 편집 실력과 디자인에 대한 잠재력을 알아본 고대신문 목정규(국어국문학과 60학번) 부주간이 그에게 신문사 입사를 제의했다. “신문 디자인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죠. 수습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기 시작했어요.”

신문 디자인의 표준을 만들다

중앙일보에 입사한 정병규 대표는 곧 최초의 ‘아트 디렉터’로서 인정받았다. “과거에 신문사는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그곳에서 신문 디자인으로 대우를 받은 게 놀라운 일이지요.” 정 대표는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정한 자신만의 디자인 원칙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 신문의 디자인이 소외당하던 시절에 정 대표는 기성 신문을 과감히 비판했다. “신문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로 대중들이 받는 영

향력도 상당한데, 당시에는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부분 디자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조금만 배우고 알게 되면 신문의 질이 훨씬 높아질 텐데, 아주 답답했죠.”

결국 그는 ‘직접 가르치기’를 택했다.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 방법과 디자인 이론을 만들고 이를 회사에 적용했다. 회사는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곧 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원리 자체는 대부분 어렵지 않아요. 그림에도 무의식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니 간과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때때로 학보사에서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만의 디자인 원칙과 신념을 전하며 직접 디자이너를 육성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본인의 철학이 담긴 ‘정병규 학교’를 설립해 활자와 책을 디자인하는 방법부터 기본적인 시각디자인 이론까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자들에게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인문학적인 디자인이란, 기술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근원적이고 확실한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이지만 디자이너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있죠. 그런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어요.”

디자인을 사랑하고 꿈꾸며

“활자와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오랫동안 책과 신문을 디자인한 정병규 대표는 활자와 이미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제목의 크기와 위치, 사진의 씬셈이 글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으며 글과 이미지 중 한쪽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 대표는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우치기도 했다. “디자인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이면서도 오래된 인간의 깊이를 담고 있어요.” 그는 좋은 디자인을 위해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패턴에 갇히는 디자인은 경계했다. “요즘 한국의 책 디자인은 몇 가지 패턴 속에 갇혀있어요. 전부 파스텔톤이거나 예쁜 것에만 치중하는 듯 보여 안타깝네요.” 그는 시력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도 인간의 역사와 인과적 사유가 녹아있는 ‘문화적 눈’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디자이너에게 문화적 눈이 필요하며, ‘맥락’을 담은 디자인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맥락을 담기 위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고, 스토리를 만들며 단편적인 디자인을 탈피했다.

평생 디자인을 꿈꾸며 살아온 정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꿈에 애정을 쏟고 있다. 최근 그는 과거 일본에서 그림책을 공부하고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그림책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그림책 이야말로 이미지와 활자가 동시에 들어맞는 영역임을 깨달았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면 과거,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의 그림책은 모두가 유년 시절 거친 과거이기에 그 의미도 특별하죠.”

정병규 대표는 대학생들이 ‘꿈’을 꾸길 바란다. “평생을 디자인에 대한 꿈을 꿔듯, 지금 청년들도 아주 좁은 분야일지라도 깊게 파고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화두를 하나 잡으세요.” 그는 자신을 밝히려는 마음을 담아 ‘자명(自明)론’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어떻게 밝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도 자신 있거나 좋아하는 영역을 찾아 자신을 밝히길 바랍니다.”

*타이포그래피: 일반적으로 글자(type)들이 주가 되는 디자인 영역. 관점에 따라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디자인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한다.

글 | 김영은 기자 kimoo@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가치 있는 치료,
같이 하는 치유

공유·공존·공감 NANOORI HOSPITAL